

지난 2004년 6월 16일 당시 고교 3학년 이던 강의석군이 공개적으로 학교에서의 의무예배를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때로부터 6년 만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서 공익소송을 제기한지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불자 세상보기

윤남진
종교자유정책 연구원 연구위원

강의석 판결과 교육의 다양성

한 행위라고 판결한 것이다.

즉, 종립학교에서 보편적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아니라 특정 종교나 종파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학생(학부모)들에게 성실히 동의를 구하고 상식적으로 기대되는 배려를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배타적 행위는 상식적 수준의 동의를 수반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적인 의미로 읽힌다.

인류사에서 종교는 사회공동체 윤리의 바탕이자 인간 삶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석자 역할을 해왔고,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해왔다고 평가받고 있

다. 그러나 종교는 사회갈등과 대립, 나아가 인권 유린의 어두운 역사도 만들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에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실시간으로 수많은 인류에게 메시지를 발화하고 있다. 이런 지구적 차원의 변화를 감안할 때에 사 랑·자비·진절·연민·관용과 같은 인류의 종교적 심성을 풍성히 하기 위한 '보편적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에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평생교육기관에서, 시민사회 등 모든 공공영역에서 시민적 덕성의 바탕이 되는 종교적 심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서

로 다른 종교적 전통에 기반한 다양한 종교가 꽃필 수 있는 기름진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작은 문전옥답을 두고 그것을 차지하고 그리고 배타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급급한 소아적 태도가 종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양산하고, 그로 인해 더욱더 날카로운 종교적 배타행위를 자극해온 악순환을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뼈저리게 학습하고 있지 않은가!

끝으로 불교계가 시급히 준비해야 할 과제도 있다. 급변 판결을 대하는 또 다른 입장 속에는 교육평준화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교육 다양성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들의 10%정도가 학교에 가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고 있으며, 20%정도는 인터넷으로 학습한다.

우리나라도 2005년 '대안교육법'이 시행되어 다양한 대안학교들이 설립되고 있다. 현재 인가받은 대안학교들 가운데 원불교 재단 학교가 7개이고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8개라고 한다. 기존의 학교교육은 인터넷 등 지구적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제도 교육과 사회교육 전반의 대응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미래는 지혜로운 예측을 토대로 알차게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사설

승가교육 개혁, 입보다 귀가 미덕이다

조계종 승가교육 개혁을 위한 대장정이 뜻하지 않게 큰 고비에 처했다. 30일 교육원이 주축해 열린 '승가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는 우여곡절 끝에 열리기는 했으나, 강원의 교직자들이 불참함으로써 반쪽 공청회가 되고 말았다. 교육원과 전국강원교직자연합회가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강원교직자연합회는 공청회가 열리기 20분 전 발표한 성명서에서 "오늘 공청회는 강원 교직자의 참여와 소통 없이 교육원 일방의 의견을 관철하려는 요식행사에 불과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어붙이기식 학사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원교직자연합회의 한 스님은 "교육원은 이미 교직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말로 불신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교육원은 "이미 수차례의 회의와 연석간

담회를 진행했고, 공청회 이후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종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한다"면서 해명에 나섰다. 2차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강원교직자연합회와 교육원의 입장을 들어보면, 신뢰의 부족이 현재의 상황을 만든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조계종을 주시하고 있다.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다. 동화사 주지후보 선출 후의 모습도 깔끔하지 않다. 더구나 곧 부처님오신날이다.

교육원과 강원교직자연합회의 질질못을 따지는 일은 무의미하다. 신뢰가 없는 가운데서 서로의 주장을 앞세우고 비판을 하면 실타래는 더욱 꼬인다. 주장을 하되 듣는 귀를 더욱 크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침묵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묻히고 만 것인가.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논란 와중에서 밝혀진 안상수 원내대표의 불교 자주성 침해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정치인은 말은 곧 정치행위다. 조계종의 사찰주지 인사를 언급한 것도 적절치 않거니와, 한 종단의 대표에 대한 예의에도 벗어난다. 좌파 운운하는 편향적인 태도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의 권위와 품위에도 영 어울리지 않는다. 불교인은 물론 선량한 국민들에게 정치의 밑바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실망스럽다. 안 원내대표의 묵묵부답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 또한 옳지 않다.

여러 불교단체의 사과할 것을 요구하

였음에도 안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일언반구 말이 없다. 처음에는 명진 스님조차 모른다고 했다가 안 원내대표 지역구에 있는 연주암 행사에 명진 스님과 함께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어 체면을 구겼다. 문제의 발언이 있었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의 증언도 있었다. 한나라당은 스님들의 방문조차 거부했다.

엿질러진 들은 대답을 수 없다. 그러나 결례질을 해서 더 이상 얼룩이 번져가지 않도록 하지 않는가. 안 원내대표가 끝내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소신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침묵하면서 시간을 끌면 유야무야된다고 보기 때문인가. 안 원내대표가 무책임한 정치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만회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선가에 귀의한 사문(沙門)이기 전에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자식 사랑의 애뜻한 유정세월이 불효자의 마음에 사무쳐어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회한에 젖는다.

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59년도 일이다. 당시는 모두가 어렵게 살았던 시절이었지만 우리집은 더 어려웠던 것 같다. 동인천역 앞의 고갯길을 지나 20분쯤 남쪽으로 걸어가면 판자촌이 있었다. 가난을 이기지 못한 우리 가족은 서울에서 그 곳으로 이사를 했다. 신문지로 바른 벽과 판자패기로 이은 방바닥은 빈대들의 낙원이었고, 우리는 이들에게 가난의 대가로 피를 헌혈하며 살았다.

나는 졸업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 하여 전학을 수가 없어 그냥 서울에 있는 학교(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매일 20분을 걸어 나와서 6시 10분에 출발하는 서울행 열차를 타야 했다. 까마저 잇기 어려웠던 우리 집에는 시계가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동쪽 새벽의 큰 별(금성)을 보시고서 밥을 지을 시간을 짐작하셨는데, 한번도 나를 지각시키지 않으셨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비바람이 치나 눈보라가 치나 늘 나를 동인천역까지 바라다 주셨다. 어느 때인가는 가난이 지나쳐 기차회수권을 사지 못해 얼마 동안 도둑열차를 타고 다녀야 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전철이 아니었으며 차내에서도 검표를 했다.

[기고] 어버이날을 앞에 두고

자식 앞에 흘린 어머니의 눈물

혜암 스님 (포천 정혜사)

회수권이 없는 나는 검표관(갈 때 세 번, 올 때 세 번)을 무사히 통과해 그날의 학교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의무교육시대가 아니었기에 돈이 없으면 초등학교도 보내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나를 1년간(5학년 때) 학교에 보내지 못했던 안쓰러움을 떠올리며 차라리 도둑열차라도 태워보아야 하는 죄책감도 불잡아매어야 했던 어머니였다.

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역 대합실까지 오면 나는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인사를 마치고 기차손님들 틈으로 웅크려 빠져 나가서는 열차에 올라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그러면 역의 철조망 너머 가로등 밑에서 이쪽을 바라보며 힘없이 서계시는 어머니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처량하게 보였지만 내에게는 그 모습이 들도 없는 보금자리였으며 바라만 보아도 좋았다. 열차가 떠나면 어머니가 손을 흔들

고 나도 열심히 손을 흔드는 동안 마침내 어머니는 조그마한 점으로 사라지고, 나는 그제야 흔들린 손을 내리고 또 다음의 관문 통과를 생각하곤 했다.

내가 이렇게 부조리한 등학교를 하고 있었을 때였다. 어느 날, 바느질을 하하던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엄마, 나는 개찰구를 빠져 달아나는 게 참 재미나. 검표아저씨는 내가 어른들 틈으로 재빠르게 달아나면 '저놈이, 저놈이' 하면서 어머니의 눈시울은 얼마나 붉어지셨을까? 어린 자식에게 떳떳지 못한 생활을 익히게 하는 부모로서의 죄의식에 어머니는 온 몸을 떠셨을 것임이 틀림없다.

생각하면 그때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신 것이 그때의 그 눈물뿐이었을까? 매일 마다 숨겨야 했던 눈물이 나의 혈압은 소리에 터지고만 눈물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 7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 과 목	교육 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종) · 중장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종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홍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수시교육 / 매월 상시 모집 중

중앙 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 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636-2972	광주교육원 062-672-5432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시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법당·앰프·마이크·스피커 설치공사 사찰 CCTV 설치 (적외선 카메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경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법당 앰프

PWA-110 320x230x270mm_4.85kg PWA-730 430x275x275mm_4kg PWA-3000 200x480x230mm_11kg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가평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대덕큰스님과 불자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